

APEC 자동차 대화체 회의

자본재표준과 공업연구사 김홍준
02) 509-7282

1. 출장개요

□ 출장목적

- 자동차분야 규격 및 기술기준관련 표준화 활성을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동차 대화체 회의 참석
-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국제기술기준 최근동향 파악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체계 구축.

□ 출장기간 : 2004. 6. 6 ~ 6. 12(6박7일)

□ 출 장 지 : 중국 북경

□ 출 장 자 : 기간산업기술표준부 자본재표준과 연구사 김홍준

2. APEC 자동차 대화체(Automotive Dialogue) 회의 개요

- 회 의 명 : 제6차 APEC Automotive Dialogue
- 회의기간 : 2004. 6. 7(월) ~ 6. 12(토) (6일)
- 회의장소 : 중국 북경 크라운 프라자 호텔
- 참석자 : APEC 회원국 정부 및 자동차업계 대표 (12개국 120여명)

- 미국 : Bruce Blakeman 상무부 경제자문관 등
- 일본 : Yoshihisa Tabata 경제산업부자동차과장 등
- 호주 : Peter Clarke 산업관광자원부자동차과장 등
- 한국 :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, 수송기계과 이상규 사무관, 기술표준원 김홍준 연구사, 자동차공업협회 및 업계 관계자 8명

□ 회의일정

| 일자 | 주요내용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. 7(월) | CAAM(중국자동차공업협회)와의 교류 회의 |
| 6. 8(화) | 제12차 조정위원회 |
| 6. 9(수) | 한-미 양국간 비공식 양자회의 |
| 6. 10(목) | 제6차 자동차 대화체 전체회의 |
| 6. 11(금) | 제6차 자동차 대화체 전체회의 |
| 6. 12(토) | 회의결과 채택 |

3. 주요 회의내용

□ 주최국의 개막연설

- 중국 상부부 Mr. Wei Jianguo 차관은 제6차 Dialogue의 성공적인 개최를 당부하면서, 중국 자동차 산

업 및 시장의 성장에 있어 WTO 가입과 국제동상규범의 준수여부는 기회이자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는 요지로 연결

□ 주요국 수석대표 기조연설

-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재훈 자본재산업부장관은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과잉공급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자동차산업도 생존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, - 그간의 적극적인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무역장벽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음
- 일본의 Tabata 경제산업성 과장은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침체와 공급과잉 상태를 언급하고, Auto Dialgu에서는 특히 환경문제와 기술규정조화, 지적재산권, 교통 등의 글로벌 이슈들을 논의하기를 희망함
- 미국의 Blakeman 상무성 경제자문관은 Auto Dialgu를 통해서 자동차 통상이슈의 해결을 희망하고 시장접근과 관련
- 중국 Zhang Shaogang 상부부 국장은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 시장접근개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언급하고, 개도국간의 협력제고를 희망함

□ Working Group별 회의 세부내용

(1) 기술규정조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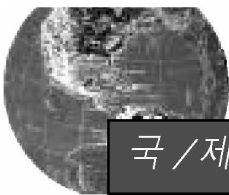
- 자동차기술규정조화 Working Group 의장은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APEC 역내 자동차업체의 관심을 촉구함
- 미국측은 아시아 국가간 MRA 추진을 목표로 아세안 자동차기술규정협력방안(ACCATR) 간사에 게 보내는 보고서에 전체 UN/ECE/WP29에 맞추어 아세안 국가의 기술규정을 통일해 나갈 것을 앞으로 제시함.
 - 그러나, 이는 아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위주 1998년정의 기술규정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임.
 - 따라서, 우리나라는 이미 규정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958년정에 아세안 국가의 기술규정 조화를 한정할 것을 일본과 공동 반의하여안을 재구성함.

(2) 통관

- 통관 working group 의장은 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workshop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고,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통관 workshop 프로그램의 확대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next steps 채택
- 또한 통관절차 Best Practice 보고서를 확장하고 회원국들의 승인을 위해 제출함

(3) 경제기술협력

- 경제기술협력 Working Group 의장은 경제기술협력 working group은 아세안 국가의 중소기업체 지원을 계속하여왔음을 강조
- 또한 아세안 국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품질관리 시스템 훈련을 위한 QMS(Quality management System)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함.
 - 필리핀은 2003.10월 QS9000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료하였고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은 2004.8월에 TS/ISO 16949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음



- 필리핀은 아세안 부품업체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TS/ISO 16949 기준에 맞춰 실시할 것을 차기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함

(4) 정보기술

- 정보기술 Working Group 의장은 APEC Supplier Site 프로젝트의 진행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더 많은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함
- 또한 국가간 부품공급 사이트의 교환 프로그램인 Network eXchange의 현황과 APEC 내 기타 forum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함
- 일본은 자동차산업에 IT기술이 접목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발표함

(5) 시장접근

- 시장접근 Working Group 의장은 APEC 회원국이 당사자가 된 양자간 FTA의 체결이 있었으며 새로운 협정이 현재 협상진행 또는 추진진보 되고 있음이 역내 자동차 시장개방과 관련 중요한 진전이었음을 언급
- 그동안의 회의에서 회원국 자동차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차례의 검토를 기친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고서가 미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정보 제공한다는 강조
-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접근 프로그램들에 대해 회원국들이 동의를 확인함
 - 역내에 완성화되고 있는 FTA 확산에 대한 자동차산업의 정책 모델 개발
 - WTO DDA관련 역내 자동차 산업계의 관심사

향 발군

- Standstill commitment의 의미와 실질적 영향에 대한 회원국간 정보교환
- Peer discussion 진행에 대한 회원국의 힘력과 회원국 자동차산업 현황자료(Auto Profile)의 APEC website 등록

(6) 환경

- 일본은 “미래자동차기술과 배기가스저감차량을 위한 연료” 보고서와 회원국의 중고자동차 수출 규제를 검토한 “Used Vehicles Matrix” 보고서 및 “자동차배기가스규제와 연료품질향상” 관련 보고서 제출
 - 이와 관련, 환경 Working Group은 자동차 연료 수준의 기준 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조정위원회에서 실행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함
- 호주는 “경차의 자발적인 배기가스 배출수준 선정”과 관련 호주 정부와 기업의 일련의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회원국간에 의견을 교환

□ 지적재산권 특별회의

- 특별회의의 사회자인 Mr. Sturrock은 자동차산업에서의 불법복제품체는 제품안전 및 인증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피해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및 사업이익에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
 - 중국 대법원 판사 Mr. Liang Zhipei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사법제도의 개요 및 발전 동향을 소개
 - 미국 상무장 Ms. Mann은 중국의 지적재산권

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소개

- GM Asia Pacific의 Mr. Theil은 자동차부품의 불법복제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소임을 강조하고, 특히 중국, 대만, 인도, 한국 등이 부품 위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

○ 우리측 수석대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구축된 것과 보호가 실제 집행(enforcement)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,

- GM의 Mr. Theil이 제시한 국가별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는 그의 개인적 의견일 뿐, Auto Dialogue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되는 것에는 주의(cautious)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

○ 회원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자동차산업의 경쟁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Auto Dialogue에 지적재산권 이슈를 다룰 새로운 working group을 만드는데 합의하고 멕시코가 지적재산권 작업반의 의장국을 수행토록 결정

□ 중국 자동차산업 전망 및 정책 발표

○ 중국은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Team Presentation 형식으로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정책, WTO가입에 따른 무역관련 자동차 정책, 통관절차 개선관련 정책,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의 중국 자동차기업의 발전전략을 소개함

□ WTO DDA협상의 기여방안

○ 크라이슬러의 Ms. Kissel은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교역 및 투자촉진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

○ 미국 ATPC의 Mr. Collins는 새로 교체된 WTO DDA NAMA 의장에게 Auto Dialogue 의장 명의의 서한 송부를 제안

- 또한 Collins는 지난 6.3~4일간 제네바에서 열린 주요국(미국, 일본, 유럽, 한국, 호주, 캐나다, 브라질) 자동차 단체들의 비관세장벽 회의 성과와 중요성을 설명

○ 대만은 자동차 세제 관련, WTO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언급

○ 일본은 비관세장벽보다는 관세인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

○ 말레이시아와 멕시코는 비관세장벽 논의의 복잡성과 협상방향의 실상이 부진하다는 문제 제기

□ 원산지 규정 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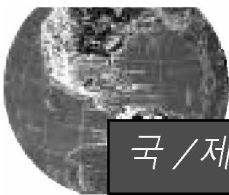
○ GM의 Mr. Zubrin은 APEC 역내 FTA의 확산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,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로드맵이 필요함을 언급
- 아울러 원산지규정은 FTA의 이익이 당사국간의 투자확대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강조

○ 호주 FCAP의 Mr. Keller는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작성방법, NAFTA, AFTA, SAFTA 등 FTA별 원산지규정의 사례를 소개

□ 기타사항

○ 회원국은 SOM package를 APEC SOM 회의에 상정기로 결정

○ 또한 Auto Dialogue의 개최국이 의장국이 되며, working group 의장과 주요 관심국가별 대표 1인



이 참석하는 Executive Committee의 창설에 합의 하였음

- 차기 Steering Committee는 10.24일 대만에서 개최됨을 확인하고, 내년 제7차 Dialogue는 필리핀이 개최를 희망하여 2005.4.21 ~ 22간 개최하기로 함

□ 한-미 비공식 회의

- 일시 및 장소 : 2004.6.9(수) 16:30 ~ 17:20

Crown Plaza Park View

○ 참석자

- 우리측 :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, 수송기계과 이상규 사무관, 기술표준원 김홍준 연구사 등 8명
- 미국측 : Al Warner 상부부 자동차과장 등 6인

○ Dialogue에 대한 입장

- Al Warner 美 상부부 자동차과장은 이번 제6차 Dialogue의 주요 관심사항인 ASEAN MRA와 Market Access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
- 또한 Working Group 의장과 주요 핵심국가들로 구성된 Executive Committee를 구성하여 회의전반을 논의할 것을 제안
- 이에 대해, 우리 측은 Auto Dialogue 의제별 입장 및 Executive Committee 운영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겠다'는 입장 표명

○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공동대응 논의

- 우리측은 중국 기시기차의 GM대우 마티즈 불법 복제권 관련 GM China로부터 입수한 기술적·법적 분석결과를 설명하고,

- 조넷 샤이니 USTR 부대표 방한 시(5.28) 우리 정부에 공동대응할 것은 제외하였는 바,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정부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를 할 계획임을 표명
- 미국 측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공동대응 한다는 입장 표명

○ 기술규정조화에 대한 논의

- 미국측은 58 및 98 협정 모두를 포함하는 UN/ECE/WP29의 내용은 아세안국가 기술규정 조화에 포함시키고자함을 표명.
- 우리측은 98협정은 미국 자국의 기술규정이 주를 이루며 또한 아직 규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, 58협정에 한정하여 아세안 국가의 기술규정을 조화하여야 함을 주장

4. 주요 회의 내용

□ 아세안 자동차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기본방향

- 동남아시아에 자동차 생산기점이 없는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, Automotive Dialogue에서의 단계적 무역장벽 철폐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
- 아울러, Eco-tech(경제·기술협력)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세안 자동차업체에 대한 우리의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,
- 중·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현지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세안 자동차시장 진출을 위해 긴요

□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

- 韓·中 산업협력위원회 등 양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의 관심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되, 외교적 문제를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
- 또한,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
 - 駐中미국대사관이 자국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공 및 법률자문서비스(www.usembassy-china.org.cn/ipr)와 QBPC(Quality Brands Protection Committee : 중국진출해외기업과 중국 중앙 및 정부간 협의체: www.qbpc.org.cn)등을 벤치마킹
 - 우리기업의 지적권 피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

특 해외 IPR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안을 관계 기관 및 업계와 검토

□ 아세안 기술규정 조화에 대한 우리원의 입장

- 미국의 자국 기술규정을 통한 아세안 국가의 기술규정 조화가 아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/ECE/WP29의 1958협정에 의한 기술규정의 조화가 필요
- 따라서, 지속적인 의견 개진으로 자동차 수출시 기술상부역장벽의 철폐와 국가별 기술규정 상이에 따른 이중 제품생산의 부조리 방지 필요
- 또한, UN/ECE/WP29 기술규정소관 부처인 건교부와 협의하여 국제적 기술규정에 부합하는 시험방법 등 국내표준 개발을 추진 필요 ●